

연구논문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of Grandparenting
Role and Life-satisfaction and Family-relationship-satisfaction

정순돌^{a)} · 박애리^{b)} · 기지혜^{c)}

Soondool Chung · Aely Park · Jeehye Ki

본 연구는 손자녀 돌봄의 지속 여부에 따라 손자녀 돌봄을 종단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차년도(2005년)에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 중 4차년도(2011년) 조사까지 설문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를 개인별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손자녀 돌봄은 종단적으로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이, 비돌봄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비돌봄 노인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돌봄중단 노인이 비돌봄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전이 노인이 비돌봄 노인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연령층에 따라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과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돌봄중단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중년층에서만 나타났으며, 돌봄전이와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FR-2013-S1A3A2055071).

a)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21 박사후연구원 박애리.

E-mail: aely337@gmail.com

c)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또한 중년층에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돌봄중단을 경험한 조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고방안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손자녀 돌봄, 돌봄의 종단적 유형,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tterns of grandparenting role on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e employed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waves of data were utilized. In this study grandparents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indicating duration of care for their grandchildren-those who were continuously raising a grandchild; those who stopped raising a grandchild; those who began to raising a grandchild; those who were not raising a grandchild at all.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stopped raising a grandchild were lower levels of life-satisfaction compared with those who were not raising a grandchild at all. Also, those who began to raising a grandchild were higher levels of family-relationship-satisfaction compared with those who were not raising a grandchild. The significant group effects were only discovered among grandparents under 65 and grandmothers who stopped raising a grandchild showed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We discus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on the grandparenting roles for grandparents' healthy life.

Key words: grandparenting, longitudinal patterns of grandparenting, life-satisfaction, family-relationship-satisfaction

I. 서론

한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노인이 가족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과 동시에 취업중인 시간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의 인적 자원으로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고령화패널」(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8년에 50세 이상 응답자 중 5.6%가 손자녀를 직접 돌봐준 경험이 있었고, 2010년에는 7%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 결과를 보면, 조부모가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경우가 5.4%였으며, 자녀가 영아인 경우 조부모가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경우는 7.7%였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가 주 돌봄자인 경우는 13%였다(최인희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돌봄의 정의가 표준화 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최인희 외 2012).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2000년에 약 240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6개월 이상 돌봐준 주 돌봄자였으며, 이는 조부모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였다(U.S. Census Bureau 2000; Williams 201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87.5%의 조모가 어떠한 형태로든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통계(장혜경 외 2006) 자료도 있어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이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은 부모가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었던 핵가족 중심의 양육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백진아 2013).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성인자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자녀양육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데 있어 조부모에 의한 돌봄을 매

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며, 세대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망으로써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문희 외 2012; 전해정 2013; 최인희 2012). 최근에 발표된 질적 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부모가 인식하는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었다. 조부모는 손자녀 돌봄이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믿으며, 그들의 가족 내 역할의 정체성을 높여줌으로써 보람과 만족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 정순돌 2011; 백진아 2013). 즉 조부모의 측면에서 자녀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조부모 특히 조모의 가족 돌봄 참여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생의 많은 시간을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로 보냈으며 가족의 주 돌봄자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의 후반기에 다시 돌봄자로서 역할을 강요받거나 지속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손자녀를 돌봄이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악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사회적 소외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조부모들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는 비돌봄 조부모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밝혀 왔다(김미혜 외 2011; 원서진 2011; Hayslip & Kaminski 2005; Musil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돌봄이 노년기에 기대되었던 삶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상 때늦은 황혼 육아로 인해 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이거나 소규모 임의표집을 통한 연구들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손자녀 돌봄의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손자녀 돌봄과 같은 가족 돌봄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요구되는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우 소수의 연구들만이 종단 자

료를 통한 손자녀 돌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전혜정 외 2013). 미국에서 진행된 Baker & Silverstein(2008)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을 돌봄지속, 돌봄시작, 돌봄중단, 비돌봄으로 유형화하여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을 시작한 노인과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노인이 비돌봄 노인에 비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종단연구는 전혜정 외(2013)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돌봄으로 전이한 노인과 비돌봄 노인만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돌봄전이 노인이 비돌봄 노인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는 돌봄지속 노인과 돌봄중단 노인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분석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을 세분화하고자 하며, 더불어 조부모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손자녀 돌봄과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모와 조부에 있어 손자녀 돌봄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전혜정 외 2013), 또한 조부모의 연령이 양육스트레스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취업한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손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의 연령이 대체로 50대에서 60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ands & Goldberg- Glen 2000; 장혜경 외 2006; 백진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갖는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돌봄의 기간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입 방안을 제공하는 데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하는가? 둘째,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이 조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계하는가? 셋째, 조부모의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과 조부모의 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II. 문헌 고찰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유형 및 연구동향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유형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며 돌봄의 유형에 따라 가족 내 적응과 관계의 질, 만족도 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손자녀 돌봄에 대한 연구는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지속해 왔는지, 손자녀 돌봄을 하지 않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 돌봄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손자녀 돌봄을 해 오다가 중단을 하게 되었는지 등 손자녀 돌봄의 수행 여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돌봄 경험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김영란 2006; 최해경 2002; 전해정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손자녀 돌봄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한국에서는 전해정(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손자녀 돌봄을 하지 않다가 도중에 맡게 되는 돌봄 전이의 경험에 대해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전이 경험의 경우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중년기 조부모와 노년기 조부모를 비교한 결과 손자녀 돌봄이 중년기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유형을 살펴보면 전해정 외(2013)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의 1차, 2차,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평균 주당 1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조부모 중 2차년도에 비양육자였으나 3차년도에 손자녀를 돌본 경우를 전이경험자로,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를 비양육자로 유형화하였다.

다세대 가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종단연구로서 Musil과 연구자들(2013)은 미국의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다세대 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 내 긴장, 자원, 조부모의 우울증상에 대해 5년에 걸쳐 세 차례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부한 자원이 조부모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가족 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유형을 조부모의 돌봄 위치(caregiving status)로 나타내고, 2세대 자녀 없이 조부모가 16세 이하

의 3세대 손자녀의 주 양육자로 같이 살며 돌보는 경우, 2세대와 동거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2세대 자녀와 같이 살지 않지만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며 주당 20시간 이내로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돌봄유형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로 조부모의 돌봄 역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실태 및 특성, 조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종단연구보다는 횡단연구가 대부분이다. 그에 따라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돌봄과 관련된 조부모의 욕구와 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강유진 2011; 백용운·이태숙 2010; 오진아 2006; 윤홍식 외 2011; 이미진·이가옥 2011; Musil et al. 2011; Sands et al. 2005).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조부모로서의 돌봄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손자녀 돌봄이라는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돌봄에 대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김미령 2014; 김은정·정순돌 2011; 백용운·이태숙 2010; 오진아 2006; 전해정·조규영 2011; 최정혜 1994; 최해경 2002; 최혜지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돌봄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돌봄의 지속 여부나 돌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손자녀 돌봄과 삶의 만족도

그동안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경우 2세대가 부재한 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김혜선 2009; 서홍란·김양호 2009; 오경성 2010; 장희선·김윤정 2008; 최혜지 2009; 한경혜·주지현·이정화 2008)이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겪는 심리적·신체적 부담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미혜 외 2011; 김은정·정순돌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백경훈 2009; 원서진 2011; 이현지·윤은주 2011; 조윤주 2006; Hayslip & Kaminski 2005; Leder et al. 2007; Musil et al. 2013; Strawbridge et al. 1997; Zauszniewski et al. 2012).

오진아(2006)는 조모의 삶의 질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조모의 나이와 종교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사회로부터 소외, 손자녀 양육부담, 건강문제, 성인자녀와의 갈등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배진희(2007)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 대한 연구에서 손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조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공동양육하는 조부모보다 경제상태나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심리적인 안녕감이 낮으며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건강상태,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는 조모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대부분 조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연령과 경제상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및 손자녀 양육가치가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진희 2007; 오진아 2007; 정재원·김문정 2010; Musil et al. 2006; Sands et al. 2005). 한편,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조모에게는 건강상태만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돌봄 유무와 관계 없이 건강상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 중년기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시기이다. 노년기에 다시 부과된 손자녀 돌봄은 노인의 일상에 새로운 도전이다. 손자녀 돌봄에 들어가는 경제적 자원이 자녀들로부터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돌봄을 수행할 체력이 중년기와는 다른 상황에서 손자녀 돌봄은 노년기를 맞이한 개인의 일상에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강유진 2011; 김문정 2006; Musil 1998).

이와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해서는,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갈등, 심리적 부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갖는 보상감의 수준을 통해 손자녀 돌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김문정 2007; 김오남 2007; 김은정 2012; 박경애 2007; Burton 1992).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조모가 조부에 비해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 이러한 부담감

을 감내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 또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2007; Nyström & Öhrling 2004; Nolan et al. 1996; Rogers & White 1998). 긍정적인 경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자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게 사회화되는 경향과 함께 자녀 양육을 주로 전담해 왔던 조모가 조부보다 손자녀 양육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박경애 2007; 전해정 외 2013). 한편, 돌봄에 대한 부담감으로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의 경우 조부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조부에 비해 양육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Kolomer & McCallion 2005; 원서진 2011). Buton(1992)은 조모들의 손자녀 양육이 새롭게 경험하는 부모역할의 의미와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을 통해 노년기를 맞이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되면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손자녀 돌봄과 가족관계 만족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가족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손자녀 양육으로 가족 내의 갈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미혜 외 2011; 김은정·정순돌 2011; Bowers & Myers 1999; Jendrek 1993). 김은정과 정순돌(2011)은 미취학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적응 경험 연구에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자신들의 배우자나 성인자녀 등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모의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양육방법과 양육태도, 양육분담 정도, 양육시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른 손자녀를 더 돌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진 경우도 있어 조모의 손자녀 돌봄이 가족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김승용과 정미경(2006)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혜택을 받고 있는 취업모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자녀 교육과 양육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방법이 달라 자녀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조모의 경우 배우자들과의 갈등도 생겨

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은주·서영희 2007; 김은정·정순돌 2011; Jendreck 1994). 이는 손자녀 돌봄에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수발이나 관심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긴장 발생 및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김문정(2007)은 손자녀 양육을 통해 노년기에 맞이하는 심리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랑과 즐거움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박경애(2007)는 손자녀 돌봄 보상감이라는 심리적 만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에 따른 보상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을 살펴보고,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으로 긍정적인 보상이 있으며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중고령 기혼 여성들은 조모가 되었을 때에 손자녀 돌봄의 책임을 가족의 미래 계획과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경험하는 의미와 정체성, 가족관계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이 양육 부담에 적응해 가고 이러한 과정이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김은정 2012). 백진아(2013)는 조부모의 경제적 수준, 학력, 사회적 경험에 따라 돌봄 경험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손자녀 돌봄을 가족주의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손자녀 돌봄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가 약화되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친밀하게 구성되는 등 돌봄 역할과 돌봄 수행에 대해 다양한 적응양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록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종단 연구가 소수이기는 하나 손자녀 돌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 내의 세대 교류와 세대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세대인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가 돌봄의 형태로 세대교류하는 것과 달리 1세대와 2세대의 세대관계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자녀 돌봄 지속유형을 지속기간에 따라 돌봄지속과 일시돌봄으로 구분하여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일수록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호혜적 관계의 양상은 65세 미만 중년층 조부모에게서 나타났다(하석철·홍경준 2014).

성별에 따른 연구를 보면, 손자녀 돌봄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부보다는 조모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며 돌보아 줄 양육자로서 조모를 선호하고(김미혜 외 2011), 조모는 자신의 딸이 취업모인 경우 손자녀를 돌봐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백진아 2013). 조모들의 손자녀 돌봄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조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거나(Buton 1992), 양육의 즐거움과 자녀와의 연대감,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충족감, 할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정 2006).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손자녀 돌봄에 참여한 조모들은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와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Waldrop & Webber 2001)가 있고, 손자녀 돌봄을 통해 노년기의 조모들이 정서적인 소외감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김문정 2006; 김은정·정순돌 2011).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외의 연구는 2세대가 부재한 가운데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며 주양육자인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나,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세대가 포함된 1세대~3세대 가족구조 안에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손자녀 돌봄유형 즉, 돌봄의 지속, 돌봄의 중단, 돌봄의 전이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 여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조부모의 욕구를 조부모 개인의 삶의 측면과 가족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이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

인을 대상으로 중·고령자의 고용과 퇴직 현황, 경제상황, 건강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자료로부터 조사구를 추출하여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5,110가구를 표집하고 2005년부터 격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2005년)에 응답한 연령이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에서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9년) 그리고 4차년도(2011년)까지 설문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를 개인별로 병합한 자료이다. 손자녀 돌봄이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손자녀 돌봄 여부에 모두 응답한 2,52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4차년도에 응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이다. 이는 경제적 상태,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건강 그리고 여가활동 등에 대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만족도이다.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응답한 삶의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0 ‘매우 불만족’ ~ 4 ‘매우 만족’)로 측정되었다. 11문항에 대한 해당 점수를 더한 측정값이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가능한 점수범위: 최소값 0~최대값 44).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2) 가족관계 만족도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4차년도에 응답한 노인이 인식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별로 응답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0 ‘매우 불만족’ ~ 4 ‘매우 만족’)로 측정되었다. 3문항에 대한 해당 점수를 더한 측정값이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가능한 점수범위: 최소값 0 ~ 최대값 12).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1~4차년도에 걸쳐 응답한 손자녀 돌봄 여부의 종단적 형태이다. 노후보장패널이 수집한 손자녀 돌봄은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손자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비동거 손자녀를 포함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거의 도맡아 돌봐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손자녀 돌봄(돌봄=1, 비돌봄=0)을 종단적으로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표 1>참조).

<표 1>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

구분	자료수집 (2005년~2011년)			
	1차(2005년)	2차(2007년)	3차(2009년)	4차(2011년)
돌봄지속	○	○	○	○
	○	×	×	×
	○	○	×	×
	○	○	○	×
돌봄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돌봄전이	×	○	×	○
	○	×	○	○
	○	×	×	○
	○	○	×	○
비돌봄	×	×	×	×

먼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손자녀 돌봄을 계속한 경우 돌봄지속으로

정의하였고, 1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에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으나 4차년도에는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경우를 돌봄중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시기가 있다가 4차년도에 들어와 손자녀를 돌본 경우를 돌봄전으로 정의하였고,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모두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없는 경우를 비돌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손자녀 돌봄의 4가지 유형을 구성하고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1차년도(2005년)에 응답한 조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과거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3차년도에 응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점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초과’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두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광역시’와 ‘도’에 대한 두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취업여부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유배우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또한 총 자녀 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자녀와의 동거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연 가구소득으로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은 노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로 0‘매우 좋지 않다’~4‘매우 좋다’로 5점 척도로 사용되었다. 3차년도에 응답한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전점수는 종속변수 측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키는 시차종속변수 모형(lagged-dependent-variable model)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평가가 연속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김동배 외 2013; 전해정 외 2013)에 따라 사전에 평가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재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평가된 만족도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손자녀 돌봄의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따라서, 노인이 응답한 과거의 만족도 정도를 종속변수의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모델에서 사용한 방정식은 선행하여 연구된 전해정 외(2013) 분석에서 사용한 방정식에 기초한다.

$$Y_{it} = \alpha + \beta_1 Y_{it-1} + \beta_2 X_i + e_{it}$$

즉, 3차시기의 만족도 종속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3차시기의 손자녀 돌봄 유형이 4차시기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의 시차종속변수 모형을 사용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4차년도까지 이루어진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이 4차년도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3차년도에 응답한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기타 변수와 함께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참고로 돌봄유형의 변화에 선행하는 1차년도에 측정된 만족도를 사전점수로 모델에 투입하여 살펴보았으나, 1차년도에 측정된 만족도가 4차년도 현재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4차시기와 근접한 3차시기의 만족도를 사전점수로 통제하였다. 다음에 위의 분석을 중년(50~64세)과 노년(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두 개의 연령층 그룹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중년과 노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40.4%가 남성, 59.6%가 여성이었고, 중년층 노인과 노년층 노인에서도 여성 노인의 참여가 높았다. 전체 평균 연령은 약 64세였으며, 중년은 60세, 노년은 70세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대상자들의 18.1%만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81.9%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었다. 노년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빈도(17.9%)가 낮아졌다. 또한 분석대상자의 60%가 도에 거주하였고, 가구원 수의 평균은 약 3명으로,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있어 중년과 노년의 분포형태가 유사하였다. 취업 상태는 약 46%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중년(55.2%)이 노년(39.6%)에 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대상자의 약 80%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그 빈도(72.9%)가 낮아졌다.

평균적으로 3.85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자녀 수(4.39명)가 많아졌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706명(28.1%)이었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함께 사는 빈도(23.6%)는 낮아졌다. 분석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총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2천만원이었으며, 중년(약 2천3백만원)에 비해 노년(약 1천5백만원)이 낮은 편이었다.

신체건강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좋지 않은 편’에서 ‘보통’ 사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2.65$, $SD=1.0$), 심리적 건강상태는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좋은 편이다’ 사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35$, $SD=.92$). 이러한 경향은 중년과 노년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M=26.64$, $SD=4.8$), 가족관계 만족도는 ‘보통’~‘만족하는 편’ 사이에 해당해($M=8.14$, $SD=1.62$), 중년에 비해 노년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년과 노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20) 단위: 명(%), mean(SD)

구분	전체 (50세 이상)	중년 (50~64세)	노년 (65세 이상)
성별(남자=1)	1,018(40.4)	495(35.4)	523(46.7)
연령(단위: 세)	63.8(6.8)	60.0(3.9)	69.9(4.2)
교육수준			
고졸 미만	2,065(81.9)	1,145(81.8)	920(82.1)
고졸	331(13.1)	201(14.4)	130(11.6)
고졸 초과	124(4.9)	54(3.9)	70(6.3)
거주지역			
서울	369(14.6)	189(13.5)	180(16.1)
광역시	638(25.3)	389(27.8)	249(22.2)
도	1,513(60.0)	822(58.7)	691(61.7)
취업 여부	1,216(48.3)	773(55.2)	443(39.6)
가구원 수	2.66(1.3)	2.76(1.2)	2.54(1.4)
유배우자	1,996(79.2)	1,179(84.2)	817(72.9)
총 자녀 수	3.85(1.45)	3.41(1.18)	4.39(1.58)
자녀와의 동거	706(28.1)	443(31.7)	263(23.6)
가구총소득 (백만원, 년간)	20.02(21.97)	23.84(24.58)	15.24(17.01)
신체적 건강	2.65(1.00)	2.47(1.0)	2.47(.98)
심리적 건강	3.35(.92)	3.46(.89)	3.22(.95)
삶의 만족도(3 차)	26.84(4.8)	27.11(4.8)	26.18(4.8)
가족관계 만족도(3 차)	8.14(1.62)	8.21(1.6)	8.0(1.7)

〈표 3〉은 손자녀 돌봄과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나타낸다. 손자녀 돌봄에 있어 1~4차년도 조사까지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8.1%였다. 이 중 1~4차년도 모두 지속적으로 손자녀를 돌봐 준 노인은 1.7%, 4차년도에 돌봄을 중단한 노인은 22.9%였으며, 4차년도에 돌봄을 재개한 노인은 3.5%였다. 이러한 손자녀 돌봄의 중단적 분포는 중년과 노년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중년이 노년에 비해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세 가지 중단적 유형에서 모두 나타났다.

〈표 3〉 손자녀 돌봄의 중단적 분포 및 만족도 특성 (N=2,520) 단위: 명(%), mean(SD)

구분	전체 (50세 이상)	중년 (50-64세)	노년 (65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손자녀 돌봄	4 차	4 차	4 차	4 차	4 차
돌봄지속	43(1.7)	30(2.1)	13(1.2)	35(2.3)	8(.8)
돌봄중단	576(22.9)	388(27.7)	188(18.8)	350(23.3)	226(22.3)
돌봄전이	88(3.5)	64(4.6)	25(2.1)	63(4.2)	25(2.5)
비돌봄	1,813(71.9)	918(65.5)	894(79.9)	1,055(70.2)	758(74.5)
삶의 만족도(4 차)	26.78(5.1)	27.24(5.3)	26.42(4.8)	26.41(4.9)	27.09(5.1)
가족관계 만족도(4 차)	7.79(1.7)	8.00(1.7)	7.68(1.7)	7.76(1.69)	7.84(1.7)

2) 손자녀 돌봄과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1~4차년도 손자녀 돌봄유형과 4차년도에 측정한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손자녀 돌봄유형 중에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은 돌봄중단이였다. 돌봄중단 노인의 경우 비돌봄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beta=-.15, p<.01$), 노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손자녀 돌봄유형과 4차시기의 만족도와의 관계

구분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	중년	노년	전체	중년	노년
	(n=2,520) (50세 이상) (β)	(n=1,471) (50~64세) (β)	(n=1,151) (65세 이상) (β)	(n=2,520) (50세 이상) (β)	(n=1,471) (50~64세) (β)	(n=1,151) (65세 이상) (β)
돌봄지속(=1)	.07	.003	.13	-.02	-.04	.01
돌봄중단(=1)	-.13**	-.15**	-.11	-.02	-.03	-.01
돌봄전이(=1)	.03	.03	.02	.05*	.09**	-.02
성별	.03	.03	-.001	-.02	-.004	-.04
연령	-.01	.00	-.09	-.07*	-.04	-.06
고졸 미만	-.03	.04	-.19	-.06	-.01	-.12*
고졸	.04	.08	-.04	.04	.09	.004
광역시	.03	.03	.10	-.06	-.02	-.10
도	.05	.03	.15	-.002	.07	-.11*
취업 여부	-.04	-.08	.03	.02	-.001	.05
가구원 수	-.07	-.07	-.04	-.04	-.05	.01
유배우자	.01	.02	-.13	-.01	-.01	.02
총 자녀 수	.05	.05	.02	.05	.003	.11*
자녀와의 동거여부	-.05	-.05	-.06	-.04	-.01	-.10*
가구 총소득	.24***	.25***	.16	.08**	.09*	.07
신체적 건강	.13**	.16**	.04	.05	.08*	-.02
심리적 건강	-.04	-.07	.01	.09**	.03	.19***
삶의 만족도(3 차)	.20***	.23***	.16			
가족관계 만족도(3 차)				.10***	.09**	.10*
상수	5.30***	2.10**	26.42*	7.17***	6.59***	6.16***
Adjusted R ²	.14	.15	.08	.08	.06	.09
F	6.13***	4.92***	1.70*	7.28***	4.29***	4.18***

주: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이에 대한 준거집단은 비돌봄(=0)

고졸 미만, 고졸에 대한 준거집단은 고졸 초과이며, 광역시와 도에 대한 준거집단은 서울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손자녀 돌봄유형과 4차시기의 만족도와 의 관계

구분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n=2,520)	(n=1,502)	(n=1,018)	(n=2,520)	(n=1,502)	(n=1,018)
	(5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 이상)
	(β)	(β)	(β)	(β)	(β)	(β)
돌봄지속(=1)	.07	.10	.06	-.02	-.01	-.03
돌봄중단(=1)	-.13**	-.17*	-.11	-.02	-.03	-.02
돌봄전이(=1)	.03	.04	.03	.05*	.06	.05+
연령	-.01	-.01	-.01	-.07*	-.05	-.08
고졸 미만	-.03	-.61**	.05	-.06	-.11	-.05
고졸	.04	-.54**	.11	.04	-.03	.06
광역시	.03	.07	.03	-.06	-.003	-.11*
도	.05	.17	-.04	-.002	.07	-.07
취업여부	-.04	-.03	-.05	.02	.01	.02
가구원 수	-.07	.001	-.12	-.04	-.03	-.03
유배우자	.01	-.01	.02	-.01	.01	-.02
총 자녀 수	.05	.05	.06	.05	.04	.06
자녀와의 동거 여부	-.05	-.07	-.05	-.04	-.03	-.05
가구 총소득	.24***	.21**	.24**	.08**	.06	.09*
신체적 건강	.13**	.22**	.07	.05	.05	.05
심리적 건강	-.04	-.04	-.02	.09**	.12**	.06
삶의 만족도(3 차)	.20***	.17*	.23***			
가족관계 만족도(3 차)				.10***	.09*	.10**
상수	5.30***	21.76*	6.10	7.17***	6.08***	7.32***
Adjusted R^2	.14	.18	.11	.08	.06	.08
F	6.13***	4.08***	3.36*	7.28***	4.06***	4.02***

주: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이에 대한 준거집단은 비돌봄(=0)

고졸 미만, 고졸에 대한 준거집단은 고졸초 과이며, 광역시와 도에 대한 준거집단은 서울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손자녀 돌봄의 중단적 유형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차에서 3차년도 사이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시기가 있다가 4차년도에 들어와 손자녀를 돌본 돌봄전이 노인이 비돌봄 노인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beta=.09, p<.01$), 노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손자녀 돌봄이 중년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와 장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녀 돌봄유형과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조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손자녀 돌봄유형은 돌봄중단이였다. 돌봄을 중단한 조모의 삶의 만족도가 비돌봄 조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17, p<.05$). 반면에, 조모에 있어 손자녀 돌봄유형 중 가족관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부에 있어 손자녀 돌봄유형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손자녀 돌봄유형이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돌봄으로 전이한 조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비돌봄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었다($\beta=.05, p=.0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양육지원에 있어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의 장기적 패턴이 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와 갖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돌봄을 횡단적으로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돌봄을 지속했는지, 중단했는지, 중도에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

는지 종단적으로 유형화하여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손자녀 돌봄에 참여한 조부모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기간에 손자녀 돌봄에 참여한 노인은 연구 대상자의 약 30% 정도이며, 이 중에 약 6%가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돌봄의 수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연령층에 따라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년층은 돌봄을 중단한 경우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중년이 돌봄을 재개한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손자녀 돌봄의 영향이 중년층에서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자녀의 성공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는 연령층으로, 손자녀를 돌봐줌으로써 자녀가 사회생활과 경제적 소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고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로서 인식하는 연령층이라고 보여진다(백진아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년의 돌봄 중단은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감소와 함께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위치가 상실됨에 따라 나타나는 조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손자녀 돌봄으로의 전이는 가족의 결속력을 증대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세대 간 관계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Burton 1992). 특히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손자녀 돌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된다(최인희 2012; Thang et al. 2011). 이러한 관계를 종단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전혜정 외(2013)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여러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e.g., 강유진 2011; 김문정 2006; 오진아 2006). 반면에, 노년의 경우에서 손자녀 돌봄과 만족도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돌봄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따라서 손자녀 돌봄은 중년에게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돌봄을 통해

얻는 보상만큼이나 건강의 쇠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쇄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전혜정 외 2013).

셋째, 성별에 따라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은 선행연구와 같이 조모가 조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을 지속하거나 돌봄으로 전이하는 경우에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족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로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돌봄에 있어 주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자녀 돌봄은 조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손자녀 돌봄을 중단한 조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삶의 많은 시간을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내 온 조모에게 있어 손자녀 돌봄은 가정 내에서 양육자로서의 역할 및, 가족과 자녀에게 관계를 유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조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다(Musil et al. 2013). 이렇게 손자녀를 돌보다가 중단한 경우에 부딪히게 되는 역할 상실 및 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었던 손자녀의 공백이 조모에게 부정적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Burton 1992). 조부의 경우 조모와는 달리 손자녀 돌봄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부와는 달리 조모의 돌봄 전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전혜정 외(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로는 조부에 있어서 손자녀 돌봄에 대한 역할이 확인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추후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자녀 돌봄에 대한 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얼마나 많은 노인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통계자료가 정의하는 손자녀 돌봄의 내용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마다 인용하고 있는 통계자료도 제각각이다. 미국의 경우 주 돌봄자와 부 돌봄자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경향이 높으며(Hayslip & Kaminski 2005), 특히 주 돌봄자일 경우에 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가족과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개입방안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

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손자녀 돌봄 노인을 대표하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중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중단적 효과를 연구한 전해정 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년층 그리고 조모의 손자녀 돌봄이 삶의 만족과 관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봄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보다 손자녀 돌봄으로 전이하게 된 노인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의 중단적 유형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사회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의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조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돌봄의 지속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다. 다만 돌봄을 중단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만큼 역할 상실 혹은 가족관계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년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7년의 장기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의 변화를 중단적으로 유형화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돌봄에 참여하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제공 유형과 노인의 연령을 고려한 조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김동배 · 박은영 · 김세진. 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83-209.
- 김동배 · 유병선 · 정요한 · 오영광. 2013.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중단적 변화와

-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4(2): 169-199.
- 김문정.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 37(6): 914-923.
- 김미령. 2014.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 김미혜 · 성기옥 · 팽경희 · 최희진 · 최소영. 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승용 ·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김은정. 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및 별이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 정순돌. 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3.
- 김은정. 2012. “맞벌이가정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자녀관계,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7(2): 25-48.
- 김은주 ·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혜선. 200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43(단일호): 61-92.
- 박경애. 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백경숙 · 김영란. 2006. “손자녀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백경훈. 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 10(2): 87-112.
- 배진희 · 노상경 ·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백용운·이태숙. 2010. “노인부양스트레스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115-136.
- 백진아. 2013. “중장년 기혼여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돌봄 공백의 가족주의적 대응.” 《담론 201》 16(3): 67-93.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서홍란·김양호.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67-296.
- 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 보육지원학회지》 6(3): 65-84.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원서진. 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 윤홍식·류연규·송다영·신경아·윤성호·이숙진·안세아. 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정환경 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진·이가옥. 2001. “노인의 가족부양자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113-124.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장희선·김윤정. 2008.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0(단일호): 7-29.
- 전혜정·조규영·박민경·한세황·J.I. Wassel. 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전혜정·조규영. 2011. “중·고령자의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 경험, 사회적 유대, 우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87-411.
- 정재원·김문정. 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 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조윤주.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21.
- 최인희 · 김영란 · 염지혜. 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정혜. 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25-36.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207-222.
- 최혜지. 2006. “조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최혜지.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한국인구학》 32(3): 103-126.
- 하석철 · 홍경준. 201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성인 자녀와의 호혜적 관계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돌봄 지속 유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51-77.
- 한경혜 · 주지현 · 이정화. 2008.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한국노년학》 28(4): 1147-1164.
-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08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고용노동부.
- Baker, L.A. and M. Silverstein. 2008.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mong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5): S304-S311.
- Bowers, B.F. and B.J. Myers.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54: 475-487.
- Burton, L.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The Gerontologist* 32: 744-751.
- Burton, L., B. Zdaniuk, R. Schulz, S. Jackson, and C. Hirsch. 2003. “Transitions in Spousal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43(2): 230-241.
- Fruhauf, C.A. and B. Bayslips. 2013. “Understanding Collaborative Efforts

- to Assist Grandparent Caregivers: A Multileveled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5): 382-391.
- Hayslip, B.J. and P. Kaminski. 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Marriage & Family Review* 37(1-2): 147-169.
- Hayslip B. and C.C. Goodman 2008. “Grandparenting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5(4): 117-119.
- Jendrek, M.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3): 609-621.
- Kolomer, S.R. and McCallion, P. 2005. “Depression and Caregiver Mastery in Grandfa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4): 283-294.
- Musil, C.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Musil, C.M., B. Camille, J.A. Warner, A. Zauszniewski, B. Jeanblanc, and K. Kercher. 2005. “Grandmothers, Caregiving, and Family Function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Biological Sciences & Medical Sciences* 61(2): 89-98.
- Musil, C.M., N.L. Gordon, C.B. Warner, J.A. Zauszniewski, T. Standing, and M.L. Wykle. 2011. “Grandmothers and Caregiving to Grandchildren: Continuity, Change, and Outcomes Over 24 Months.” *The Gerontologist* 51(1): 86-100.
- Musil, C.M., A.B. Jeanblanc, C.J. Burant, J.A. Zauszniewski, and C.B. Warner. 2013. “Longitudinal Analysis of Resourcefulness, Family Strain, and Depressive Symptoms in Grandmother Caregivers.” *Nursing Outlook* 61(4): 225-234.
- Nolan M., G. Grant, and J. Keady. 1996. “Stress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Reconceptualising the Measurement of Carere Burd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544-555.
- Nyström, K. and K. Öhring. 2004. “Parenthood Experiences During the Child's First Year: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6(3): 319-330.

- Rogers, S.J. and L.K. White.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Sands, R.G., R. Goldberg-Glen, and P.L. Thornton.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Well-being of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4): 65-82.
- Strawbridge, W.J., M.I. Wallhagen, S.J. Shema, and G.A. Kaplan.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4): 505-510.
- Thang, L.L., K. Mehta, T. Usui, and M. Tsuruwaka. 2001. "Being a Good Grandparent: Roles and Expectation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Japan and Singapore." *Marriage & Family Review* 47(8): 548-570.
- Waldrop, D.P. and J.A. Weber. 2001.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Transi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27-46.
- Waldrop, D.P. and J.A. Weber. 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and Society* 82(5): 461-472.
- Williams, M.N. 2011. "The Changing Role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 948-962.

<접수 2015/6/1, 수정 2015/7/20, 게재확정 2015/8/11>